

미국 700MHz 대역 주파수 경매의 연기결정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김진기
(T. 570-4357, kimjk@kisdi.re.kr)

1. 개요

2002년 5월 7일 미국 하원은 FCC가 6월 19일 실시하기로 했던 주파수 경매를 연기하도록 하는 법안(H.R. 4560, 2002 경매개정법)을 승인하였다. 이번에 경매하기로 했던 주파수는 700MHz 대역으로, 기존에 TV방송사들이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이다.

미국은 1998년 11월부터 지상파방송에 디지털을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다. 기존 아날로그방송은 2006년까지 중단하고 주파수를 반납하기로 되어 있다.¹⁾ 방송사들이 기술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함에 따라 반납하는 700MHz 주파수 대역은 통신용으로 전환하여 경매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주파수 대역은 많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보유하기를 희망하는 주파수 대역이다.

이번 경매의 대상이 되었던 60~69 채널의 주파수 경매는 이미 5차례나 연기되었고, 9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50~59 채널의 주파수 경매도 이번 결정으로 다시 연기하게 된 것이다. 이 결정으로 기존 TV방송사들이 사용하고 있던 700MHz 대역의 주파수 경매에 대한 법적 시한이 사라졌으며, 정부는 방송사들이 디지털로 전환함에 따른 주파수경매의 일정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2. 주파수 경매 연기의 배경 및 과정

이번 주파수 경매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FCC는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함에 따라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일부 방송용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통신사업자들에게 매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FCC는 2년 전부터 해당 주파수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주파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지에 대한 기술적인 대안이

1) 보급률이 85%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하였음

준비되지 않아 지금까지 5번이나 연기하게 된 것이다. 특히, 관련 규정에는 2002년 9월 30일까지 매각하도록 되어 있었다.²⁾

이번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상정되었는데, 하원 상무위원회의 Billy Tauzin 위원장(공화당, Louisiana주)이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의 내용은 현재 방송사가 사용하고 있는 700 MHz 대역의 주파수에 대해 FCC가 6월로 예정된 경매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한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FCC가 경매 일정을 언제로 재조정할지 그리고 디지털 TV로의 전환과 이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언제 분배하고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뒤 1년 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³⁾

방송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주파수 대역은 늦어도 9월 30일까지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6년 통신법은 방송사업자들에게 늦어도 2006년까지 기존의 주파수 대역을 반납하고, 디지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Tauzin 위원장은 비록 의회가 6월 19일로 예정된 주파수 경매를 연기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FCC가 일시적으로 주파수경매를 연기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Tauzin 위원장은 이번 경매에 대해서 FCC의 Michael Powell 위원장과도 이미 논의하였고, FCC가 다른 시기로 연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⁴⁾

상원에서도 John Ensign(공화당, Nevada주)의원과 John Kerry(민주당, Massachusetts주)의원의 의원입법으로 이에 대한 법안을 상정하였다. 상원 상무위원회 Ernest Fritz Holdings 의원(민주당, South Carolina주)은 이 제안을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⁵⁾

상원도 하원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Ted Stevens(공화당, Alaska주)의원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상원은 지방에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사업을 전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매각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⁶⁾

상·하원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방송사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방송사들은 조기에 주파수를 반납하는 대가에 대해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2) 이태용, 「미국, 이용하지 않는 방송용 주파수 매각 일정 연기」, 『Telecom Today』, 제36호, 2002. 4. 27., pp.5~6

3) Mark, Roy, "House Votes to Delay Spectrum Auction," *Wireless News*, 2002. 5. 8.

4) Pelofsky, Jeremy, "Tauzin Sees FCC Delay on June US Wireless Sale," *Yahoo! News*, 2002. 5. 6.

5) Washington Post, "House Approves Bill to Delay Spectrum Auction," 2002. 5. 7.

6) Pelofsky, Jeremy, "Tauzin Sees FCC Delay on June US Wireless Sale," *Yahoo! News*, 2002. 5. 6.

있다.

한편 하원이 이렇듯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원의 Tauzin위원장이 케이블사업자들을 규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Tauzin 의원은 케이블사업자 대표들의 모임에서 의회에서 다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몇몇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케이블TV의 요금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John McCain 상원의원(공화당, Arizona주)은 물가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케이블 요금의 인상폭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3. 관련 업계 및 FCC의 반응

한편 FCC의 경우 지난 달 의회 청문회에서 FCC의 Powell 위원장은 경매를 연기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의회가 정한 9월 기한에 앞서 경매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 못할 경우 FCC는 의회로부터 이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여러 기관에서 이번 주파수 경매의 연기를 주장하자 Powell 위원장은 경매의 시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연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히면서 주파수 경매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률을 제정한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매각일정의 연기도 의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획득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했던 이동통신사업자들도 FCC에 이번 경매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것은 이 주파수대역이 언제 사용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부의 명확한 주파수 이용 계획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CTIA(Cellular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Association)의 Tom Wheeler 회장은, 이동통신업계와 미국 행정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어떠한 소득도 없이 손실만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FCC가 하원의 행동에 대해서 역시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시장상황과 사업계획에 적합한 시점에 주파수를 매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특정경매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4월 중순 CTIA는 FCC에 이번 경매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FCC의 이동통신국(Wireless Bureau)은 이러한 요청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미국 상무부 Donald Evans 장관도 FCC에 서한을 보내서 의회가 경매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결정할 때까지 이

번 6월의 매각을 FCC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⁷⁾

참고자료:

- [1] 김국진·천혜선, 「방송의 디지털전환 과정과 정책대응」,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제13권10호 통권279호, 2001. 6. 1., pp.1~22.
- [2] 이태용, 「미국, 이용하지 않는 방송용 주파수 매각 일정 연기」, 『Telecom Today』, 제36호, 2002. 4. 27., pp.5~6.
- [3] CTIA, “House Panel Approves Bill to Delay Spectrum Auction,” 2002. 5. 2.
- [4] _____, “Rep. Tauzin Says FCC Likely to Delay 700 MHz Auction,” 2002. 5. 7.
- [5] _____, “U.S. House Votes to Delay 700 MHz Auction,” 2002. 5. 8.
- [6] _____, “U.S. Senate Introduces Legislation on 700 MHz Delay,” 2002. 5. 3.
- [7] Mark, Roy, “House Votes to Delay Spectrum Auction,” *Wireless News*, 2002. 5. 8.
- [8] Pelofsky, Jeremy, “Tauzin Sees FCC Delay on June US Wireless Sale,” *Yahoo! News*, 2002. 5. 6.
- [9] Washington Post, “House Approves Bill to Delay Spectrum Auction,” 2002. 5. 7.

영국의 VoIP서비스 규제현황

공정경쟁연구실 주임연구원 김남심
(T. 570-4116, knsm@kisdi.re.kr)

지난 4월초 영국의 통신 규제기관인 Oftel은 VoIP서비스 규제 현황에 대한 요약서를 발간하였다. 요약서는 VoIP서비스 규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질문되는 11가지 사항들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2000년 초 새롭기술의 다이얼패드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시작된 VoIP서비스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서비스 본질에 대한 논의, 역무 분류, 번호계획, 상호접속 등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Oftel의 VoIP서비스 규제 현황을 VoIP서비스에 대한 규제 이슈 정리 차원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7) Mark, Roy, “House Votes to Delay Spectrum Auction,” *Wireless News*, 2002. 5. 8.